

## 주요 내용

### 1. [개신교인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인식]

개신교인, 언론사보다 목회자가 제공하는 뉴스 더 신뢰!

###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1인가구 현황

2) 한국인의 암 발생 통계

3) 혼밥과 노인 노쇠 연관성



# 개신교인, 언론사보다 목회자가 제공하는 뉴스 더 신뢰!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며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년여의 코로나 19는 교회의 비대면 예배 확산을 초래했고, 온라인 예배의 일상화와 정착은 미디어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과 의존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끼쳤다. 거기에 IT기술과 미디어 플랫폼의 발달은 미디어 소비를 더욱 확장시켰다. 개신교인들의 미디어 이용 범위는 더욱 광범위해졌고, 미디어 채널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기독교 콘텐츠는 무궁무진해졌다.

이렇듯 오늘날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개신교인의 신앙 활동 역시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개신교인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번 넘버즈에서는 이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디어와 한국교회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신교인의 '미디어/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 그리고 '미디어를 수용하는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개신교인이 언론사보다 목회자가 제공하는 뉴스를 더 신뢰하고 있고, 허위 정보(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회피·무시하는 성향이 높았으며, 허위 정보를 내부보다는 외부의 문제로 인식하는 등 허위 정보에 취약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개신교인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 교회 출석자 : 852명, 가나안 성도 : 148명
표본 추출 방법	개신교인의 지역/성/연령별 비율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표본 오차	±3.1%p (95% 신뢰구간) (무작위 추출 가정)
조사 기간	22023년 9월 15일 ~ 9월 27일(13일간)
조사 의뢰 기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조사 기관	(주)마크로밀엠브레인

# 01

## [개신교인의 미디어 이용 현황] 개신교인의 주 이용 미디어, 유튜브!

- ▶ 교회 출석자에게 한 달 내 이용한 매체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유튜브'가 76%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인터넷' 66%, 'TV' 54%, '소셜미디어' 37%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적을수록 유튜브, 소셜미디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TV 이용률이 높았다.

[그림] 한 달 내 이용 매체 (교회 출석자, 1+2+3순위,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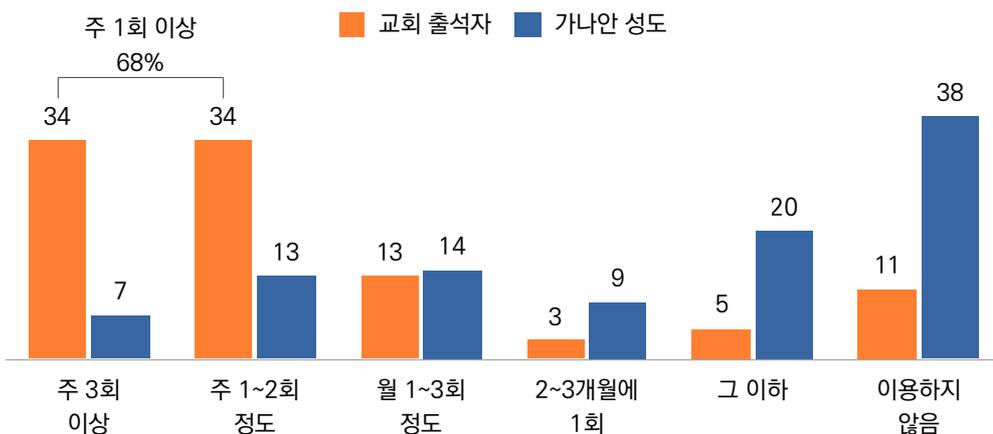
구 분	유튜브	인터넷	TV	소셜 미디어	OTT*	책	라디오
전 체	76	66	54	37	37	15	9
연령	19~29세	90 ↑	55	17 ↓	72 ↑	48	10
	30~39세	79	64	24	53	61	14
	40~49세	74	69	52	34	39	18
	50~59세	70	68	67	27	39	13
	60세 이상	74	71	78 ↓	24	17	18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 ◎ 교회 출석자 10명 중 7명, 1주일에 1회 이상 기독교 콘텐츠 접촉!

- ▶ 평소 기독교 관련 소식이나 정보를 담은 기독교 콘텐츠 접촉 빈도를 살펴본 결과, 교회 출석자 대다수(89%)가 평소 기독교 콘텐츠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주 1회 이상 접하는 비율은 68%로 높게 나타났다.
- ▶ 눈에 띄는 점은 '가나안 성도'의 기독교 콘텐츠 이용 빈도이다. 가나안 성도의 경우 10명 중 6명(62%)은 기독교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나안 성도의 20%는 주 1회 이상 기독교 콘텐츠를 접하고 있어 기독교 콘텐츠가 가나안 성도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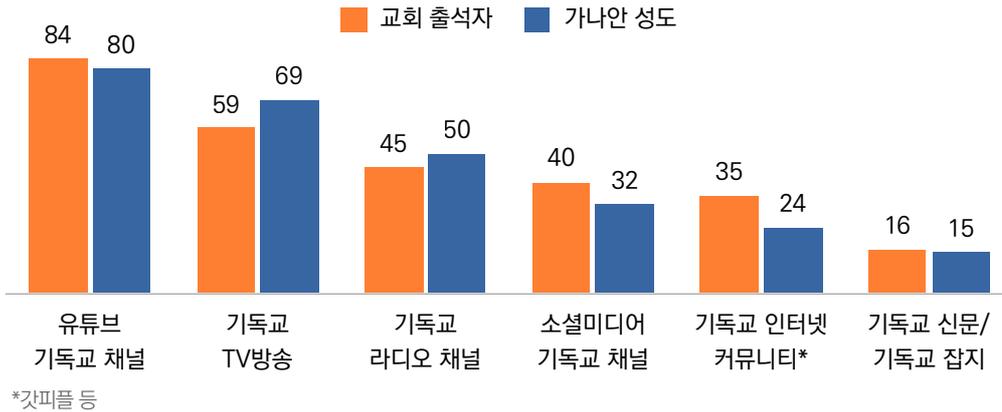
[그림] 기독교 콘텐츠 접촉 빈도 (개신교인, %)



## ◎ 기독교 콘텐츠 접촉 매체 역시 유튜브가 대세!

- ▶ 기독교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주로 콘텐츠를 어떤 경로로 접하는지를 물었더니 교회 출석자의 경우 ‘유튜브 기독교 채널’이 84%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기독교 TV 방송’, ‘기독교 라디오 채널’, ‘소셜미디어 기독교 채널’ 등의 순이었다.
- ▶ ‘기독교 TV 방송’의 경우 교회 출석자 대비 가나안 성도의 이용률이 높았는데, 앞서 가나안 성도의 기독교 콘텐츠 이용률이 62%였던 점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기독교 TV 방송’이 가나안 성도의 일종의 신앙 대체제로서 사용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기독교 콘텐츠 접촉 매체 (기독교 콘텐츠 이용자, 1+2+3순위, 상위 6위, %)



## ◎ 개신교인 신앙 성장에 도움, 10년간 ‘예배/설교’ 영향 크게 줄고, ‘미디어’ 영향 비약적으로 증가

- ▶ 작년 1월 조사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의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인이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것으로 ‘출석 교회 예배/목사님 설교’란 응답은 2012년 64%, 2023년 28%로 10년간 절반 아래로 감소했지만, ‘미디어’ 영향을 꼽은 비율은 1%에서 19%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 ▶ 개신교인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요소가 설교 등 교회 내적 요인에서 이제는 미디어 등 교회 외적인 요인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것 (개신교인,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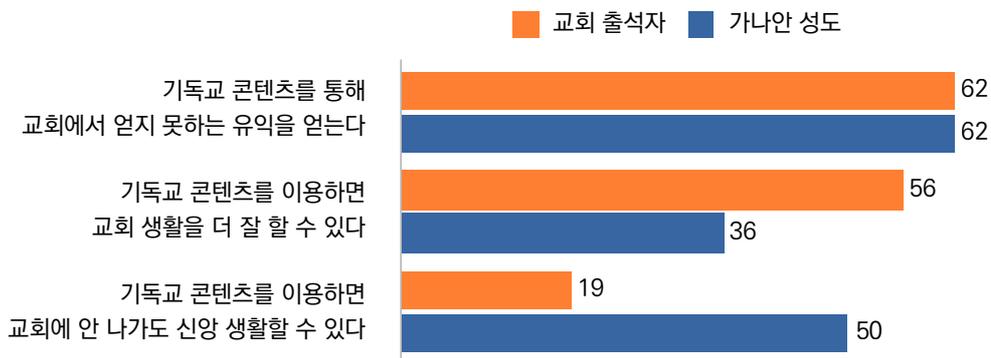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 02

## [개신교인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 기독교 콘텐츠, '교회에서 얻지 못하는 유익 있다', 62%!

- ▶ 기독교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콘텐츠 이용 관련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매우+약간 그렇다)을 확인했다. 교회 출석자와 가나안 성도 모두 '기독교 콘텐츠를 통해 교회에서 얻지 못하는 유익을 얻는다'에 62%가 동의해 기독교 콘텐츠를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기 위한 보조·보완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 ▶ 반면 '기독교 콘텐츠를 이용하면 교회에 안 나가도 신앙 생활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교회 출석자와 가나안 성도의 인식이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데, 교회 출석자의 경우 19%만 동의했지만 '가나안 성도'의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50%가 동의해 큰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기독교 콘텐츠 이용 관련 인식 (기독교 콘텐츠 이용자,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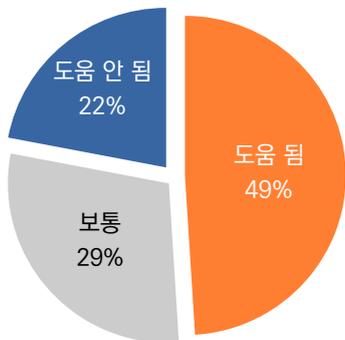


\*5점 척도임

### ◎ 개신교인 절반, '비기독교 콘텐츠도 신앙생활에 도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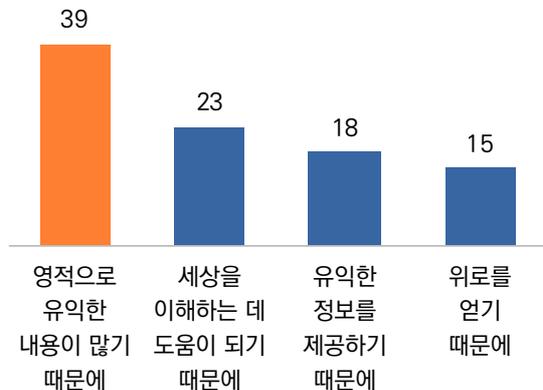
- ▶ 그렇다면 일반(비기독교) 콘텐츠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은 어떠할까? 우선 평소 접하는 일반적인 콘텐츠가 개신교인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교회 출석자의 절반(49%)이 일반(비기독교) 콘텐츠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유연한 인식을 보였다.
- ▶ 일반 콘텐츠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교회 출석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영적으로 유익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가 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23%)가 그다음이었다.

[그림] 일반(비기독교) 콘텐츠 신앙생활 도움 인식\* (교회 출석자, %)



\*5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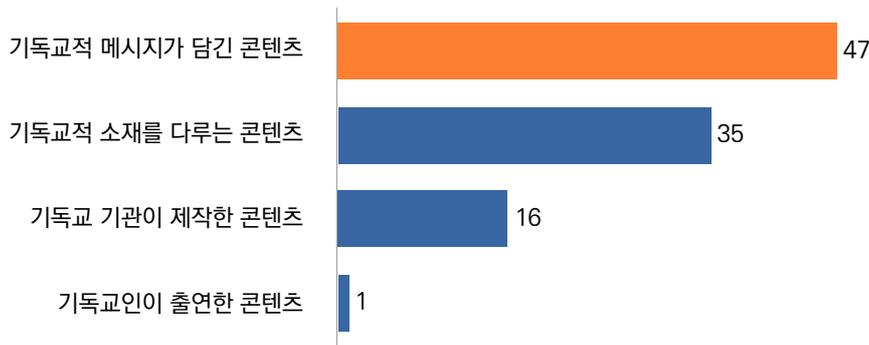
[그림] 일반 콘텐츠 신앙생활 도움 되는 이유 (교회 출석자, 상위 4위, %)



## ◎ 기독교 표현 없더라도 기독교적인 메시지 담기면 기독교 콘텐츠!

- ▶ 개신교인이 생각하는 기독교 콘텐츠는 무엇일까? 교회 출석자의 경우 사랑, 평화, 속죄 등 '기독교적 메시지가 담긴 콘텐츠'라면 '기독교 콘텐츠이다'라는 인식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콘텐츠에 직접 '교회, 하나님, 예수님' 등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속에 담긴 가치가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다면 기독교 콘텐츠라고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직접적인 소재를 다루는 콘텐츠보다 더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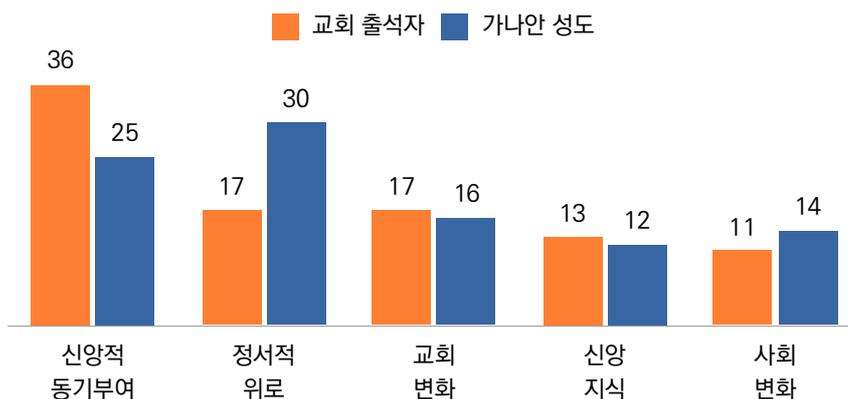
[그림] 기독교 콘텐츠의 정의 인식 (교회 출석자, %)



## ◎ 필요한 기독교 콘텐츠, 교회 출석자→'신앙적 동기부여', 가나안 성도→'정서적 위로'!

- ▶ 향후 필요한 기독교 콘텐츠에 관해 묻은 결과, 교회 출석자는 '신앙적 동기부여 콘텐츠(36%)'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가나안 성도는 '정서적 위로를 주는 콘텐츠(30%)'가 더 높게 나온 점이 주목된다.
- ▶ 또한 전반적으로 교회나 사회 변화를 위한 콘텐츠보다 개인 차원의 콘텐츠(신앙적 동기부여, 정서적 위로)를 더 우선순위로 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향후 필요한 기독교 콘텐츠 유형 (개신교인,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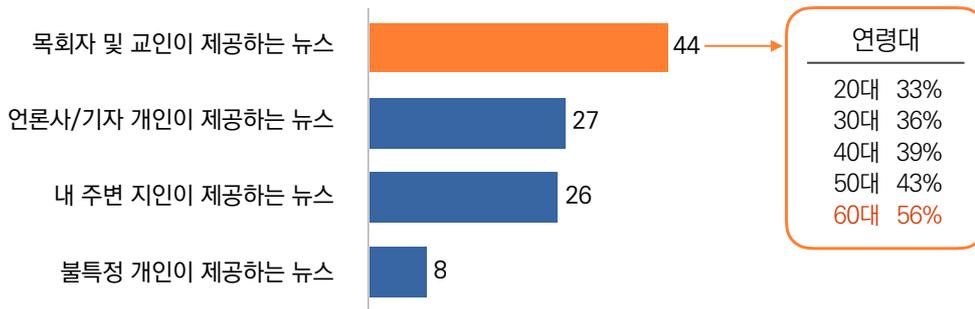
# 03

## [개신교인 미디어 수용 태도와 인식]

### 개신교인, 언론사보다 목회자가 제공하는 뉴스 더 신뢰!

- ▶ SNS/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접한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뉴스 제공자별로 살펴보았다. ‘목회자 및 교인이 제공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매우+대체로 신뢰)가 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언론사/기자 개인이 제공하는 뉴스’ 27%, ‘내 주변 지인이 제공하는 뉴스’ 2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목회자 및 교인 제공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 ▶ 개신교인(교회 출석자)이 언론사보다 목회자 및 교인이 제공하는 뉴스를 더 신뢰한다는 점은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를 맹목적으로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림] SNS/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뉴스 신뢰도 (교회 출석자, ‘매우+대체로’ 신뢰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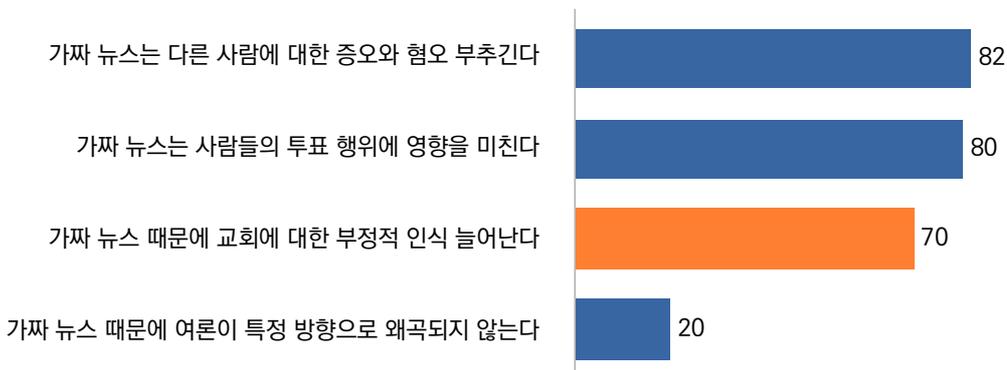


\*5점 척도임

### ◎ 개신교인 10명 중 7명, ‘가짜 뉴스 때문에 교회 부정 인식 증가!’

- ▶ 이번에는 가짜 뉴스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회 출석자의 동의율(매우+대체로 그렇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짜 뉴스는 타인에 대한 증오/혐오를 부추기고’, ‘사람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에 대한 개신교인의 동의율이 80%대로 높았고, 이어 ‘가짜 뉴스로 인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다’도 개신교인 10명 중 7명가량(70%)이 동의해 가짜뉴스가 개인, 교회, 사회/정치 전반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림] 가짜 뉴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교회 출석자,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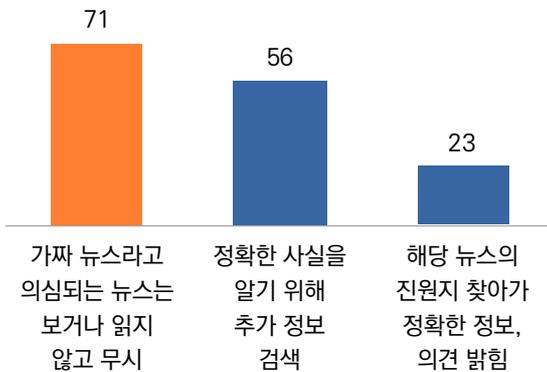


\*5점 척도임

## ◎ 개신교인이 가짜 뉴스를 대하는 자세, ‘적극적 대처’보다 ‘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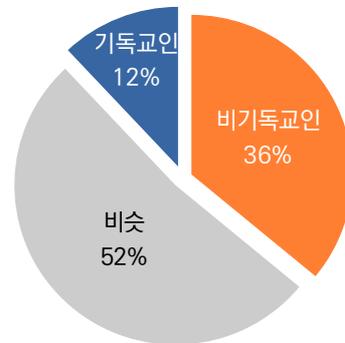
- ▶ 교회 출석자에게 가짜 뉴스에 관해 3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물었다. 먼저 ‘가짜 뉴스라고 의심되는 뉴스는 보거나 읽지 않고 무시’한다는 응답이 71%로 가장 많았다. ‘추가 정보를 검색(56%)’하거나 ‘해당 뉴스의 진원지를 찾아가 정확한 의견을 밝힌다(23%)’ 등의 보다 적극적 대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중 가짜 뉴스를 누가 더 많이 생산/유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둘 다 비슷’이 52%로 가장 높았고, ‘기독교인’ 12%, ‘비기독교인’ 36%로 ‘비기독교인’이 더 많이 생산/유포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 ▶ 종합적으로 개신교인(교회 출석자)은 목회자 및 교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를 갖는 편이며, 허위 정보를 무시·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짜 뉴스 등 허위 정보를 교회 외적 요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즉 교회는 허위 정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림] 가짜 뉴스에 대한 반응  
(교회 출석자,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



\*5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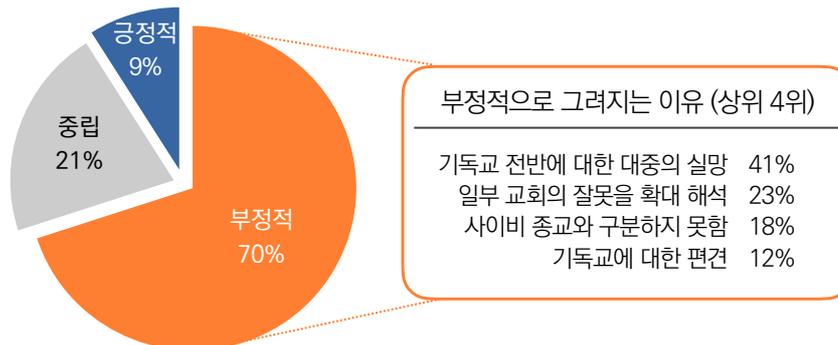
[그림] 가짜 뉴스 생산 유포자 인식\* (교회 출석자)



## ◎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기독교 이미지, 70%가 ‘부정적 이미지’!

- ▶ 대중문화에서도 심심치 않게 기독교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대중문화에 나타난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물었다. 그 결과, 개신교인의 70%는 ‘부정적’이라고 인식했고, ‘긍정적’이란 응답은 9%에 불과했다.
- ▶ 그렇다면 기독교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개신교인 10명 중 4명(41%)이 ‘기독교 전반에 대한 대중의 실망’을 꼽아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부 교회의 잘못을 확대 해석’ 23%, ‘사이비 종교와 구분하지 못함’ 18% 등의 순이었다. 대중이 기독교의 어떤 부분에 대해 실망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그림]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기독교 이미지 (교회 출석자)



스마트폰의 알람으로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열어 밤사이 업데이트된 메시지와 정보를 확인한다.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거실에 틀어둔 TV나 앱을 통해 뉴스나 음악을 흘러들으며 미디어가 주는 정보와 즐거움을 누린다.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봐야 할지, 드라마를 봐야 할지, 쇼핑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자기 계발을 위해 영어 공부나 교양 정보를 들어야 할지는 늘 고민이다. 온갖 미디어와 함께 한 하루는 자기 전 침대에서까지 이어지다가 스마트폰을 침대 머리맡에 놓고 나서야 비로소 잠을 잔다.

현대인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미디어는 가득 들어와 있다. '미디어'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의 의미인 '매체'를 뜻하는데, IT기술의 발전으로 그 영역이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시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되었다. 온갖 멀티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성인 보급률이 97.4%<sup>1)</sup>라고 하니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미디어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이번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이 발표한 '개신교인의 미디어 이용과 신앙에 대한 연구 조사'는 이렇게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개신교인의 소비와 인식을 알고 한국교회가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주목할 만한 결과와 교회가 대응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자면 먼저 교회의 보완·보조재로 자리 잡은 미디어 영향력과 활용이다. 개신교인이 신앙 성장에 도움 받은 것<sup>2)</sup>을 물었을 때 '출석 교회 예배와 설교'의 영향력은 지난 10년 사이 절반 이상으로 크게 떨어졌지만(64%→28%), 미디어의 영향은 1%에서 19%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개신교인 10명 중 6명(62%)이 '기독교 콘텐츠를 통해 교회에서 얻지 못하는 유익을 얻는다'고 동의했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콘텐츠의 확장과 보급으로 개신교인이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앙적 갈급함을 채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나안 성도의 경우 기독교 콘텐츠를 62%가 이용하고 있으며, 기독교 콘텐츠를 교회 없이 신앙생활의 대체제('기독교 콘텐츠를 이용하면 교회에 안 나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등

의율)로 인식하는 경우가 50%라는 점은 가나안 성도가 교회 밖 기독교 콘텐츠를 통해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가짜 뉴스에 취약한 교회의 구조와 이에 대한 경계이다. 교회 출석자의 경우 언론사나 주변 지인보다 목회자나 교인이 제공하는 뉴스를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도드라졌다. 60대의 경우 '언론사 제공 뉴스 신뢰도(24%)'보다 '목회자/지인 제공 뉴스 신뢰도(56%)'를 2배 이상 더 신뢰하고 있었다. 또한 개신교인의 69%는 '가짜 뉴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한 뉴스'가 가짜 뉴스임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가짜 뉴스의 피해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목회자는 교인이 목회자가 제공하는 뉴스에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목회자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신앙적 메시지를 구별하여 교인에게 특정 목적을 위해 그릇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되며 교회 안에서 허위 뉴스가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문해력: Media Literacy)'란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제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는 와중에 개신교인이 기독교 콘텐츠를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는 이번 조사 결과 '유튜브'이다. 유튜브에는 1분에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하루치를 다 보려면 꼬박 82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러한 유튜브 홍수 속에서 세상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유익한 콘텐츠와 정확한 정보를 구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개신교인만의 미디어 문해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1) 한국갤럽, '2012-2023 스마트폰 사용률', 2023.07.18.

2)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기독교리포트' 202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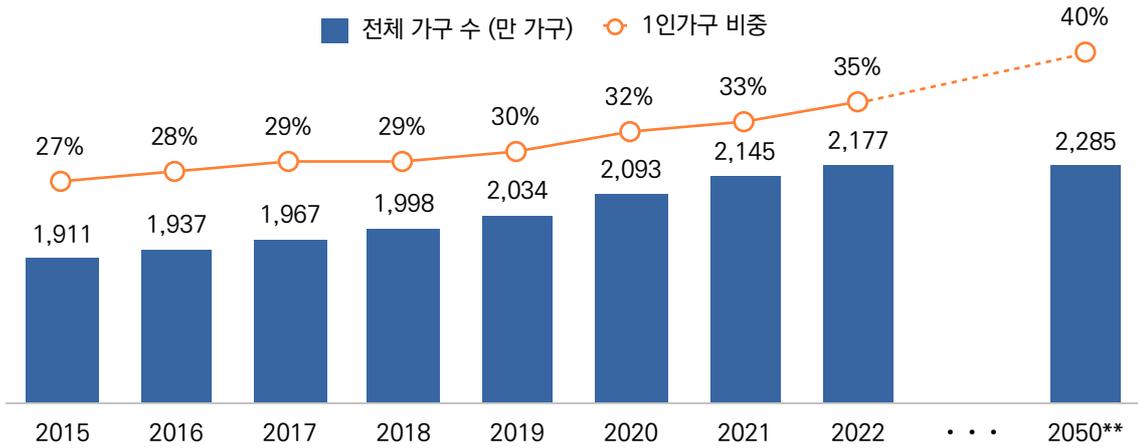
- 1.[1인가구 현황]
- 2.[한국인의 암 발생 통계]
- 3.[혼밥과 노인 노쇠 연관성]



## 2022년 1인가구, 전체 가구의 35%!

- ▶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2,177만 가구였고, 1인가구는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 수준으로 조사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5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인가구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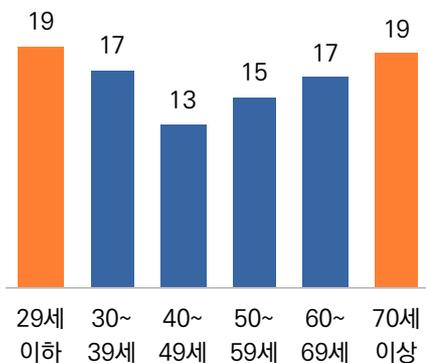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3.12.12.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2.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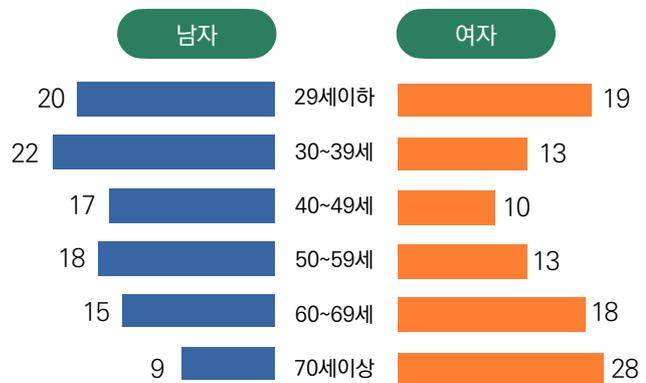
### ◎ 여성 1인가구 중 60대 이상, 46% 차지!

- ▶ 1인가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와 '70세 이상'이 각각 19%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가장 낮았다. 2030세대의 경우 5명 중 1명꼴로 1인가구였다. 독립을 하는 20대에서 가장 높았다가 가정을 꾸리면 서 낮아진 1인가구 비율은 40대를 저점으로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 성·연령별 비중으로 보면 남성은 30대가 22%로 가장 높고, 여성은 70세 이상이 28%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여성의 1인가구 비율은 46%로 전체 1인가구 여성의 절반에 육박했다.

[그림] 1인가구 연령별 비중 (2022, %)



[그림] 1인가구 성·연령별 비중 (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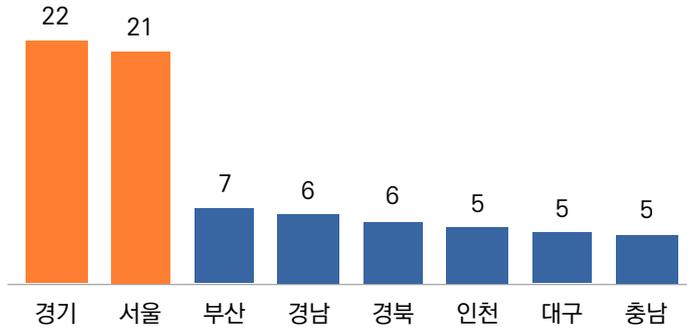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3.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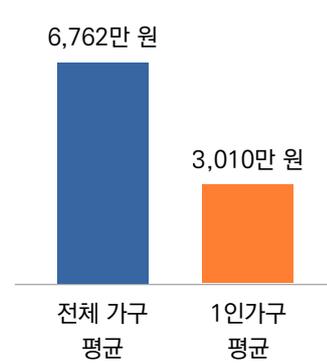
## ◎ 1인가구 소득, 전체 가구 평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쳐

- ▶ 지역별로 1인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 1인가구 역시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 특히 '경기(22%)', '서울(21%)'에 43%가 집중되어 있었다. 전체 1인가구 5가구 중 2가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얘기다.
- ▶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을 조사한 결과, 2022년 3,010만 원으로 전체 가구 연간 소득의 45% 수준이었다.

[그림] 1인가구 지역별 분포 (2022, %)



[그림] 1인가구의 연간 소득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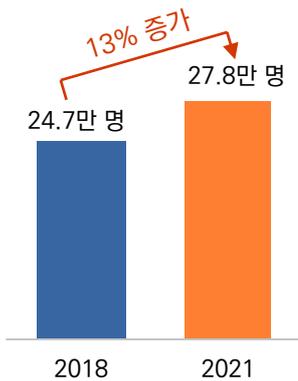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3.12.12.



##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걸린 암, 남자는 ‘폐암’, 여성은 ‘유방암’!

- ▶ 최근 보건복지부의 국가암등록통계 자료가 발표되었는데 매년 2년 전 기준으로 암 발생률, 유병률 등을 산출하고 있어 2021년 기준으로 암 발생 통계를 살펴본다. 2021년 신규 발생한 암 환자는 27만 8천 명으로 2018년 대비 13% 증가했다.
- ▶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걸린 암은 무엇일까? 2021년 기준으로 갑상선암이 1위였고, 이어 대장암, 폐암, 위암 등의 순이었는데 남성의 경우 폐암이, 여성은 유방암이 각각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했다.

[그림] 신규 암 환자 수 추이



[표] 암 발생자 순위 (2021, 종합 상위 6위)

순위	전체 순위	남성 순위	여성 순위
1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2	대장암	위암	갑상선암
3	폐암	대장암	대장암
4	위암	전립선암	폐암
5	유방암	간암	위암
6	전립선암	갑상선암	췌장암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 72.1%, 10년새 6.6%p 보도자료, 2023.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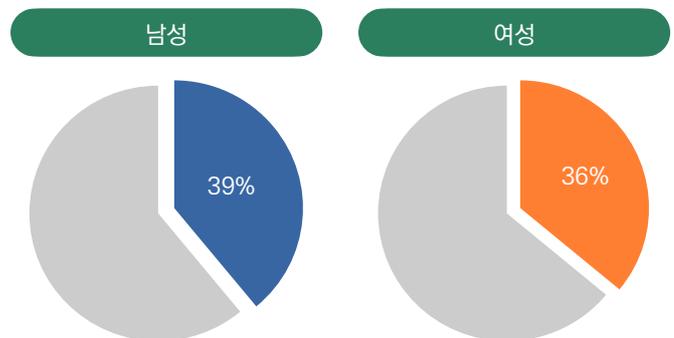
### ◎ 기대수명까지 생존 시, 국민 38% 암 걸려!

- ▶ 우리 국민 중 암 유병자 수는 총 243만 4천 명이며 그중 여성이 56%를 차지했다.
- ▶ 한편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2021년 기준 평균 84세(남성 : 81세, 여성 : 87세)인데,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전체 평균 38%로 남성(39%)이 여성(36%)보다 다소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수명은 더 짧고 암 발생률은 더 높은 셈이다.

[그림] 성별 암 유병자\*\* 비율 (2022.1.1. 기준)



[그림] 기대수명(84세)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 (2021,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 72.1%, 10년새 6.6%p 보도자료, 2023.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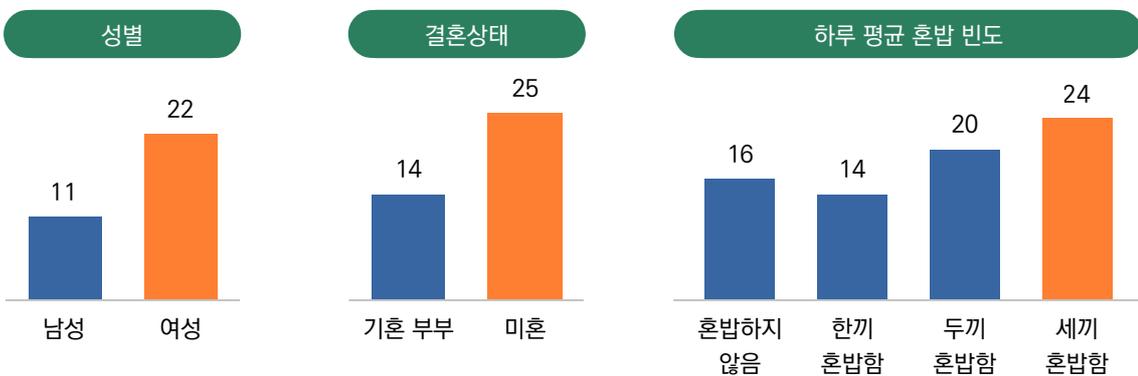
\*\*1999년 이후 암확진을 받아 2022년 1월 1일 기준,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임



## 하루 세끼 혼밥하는 노인,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노쇠화 심해!

- ▶ 한국 노인의 혼밥(홀로 밥을 먹는 것) 빈도와 노쇠화의 연관성을 파악한 연구 결과가 있어 소개한다. 을지대학교 연구팀의 ‘한국 노인의 노쇠와 혼밥 빈도의 관련성 연구’ 보고서에서 ‘체중 감소, 악력 감소, 보행 속도의 저하, 정신적 허탈, 신체 활동량 감소’ 등 5개 노쇠 항목을 기준으로, 이중 3개 이상 해당자를 노쇠군으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응답자 9,031명 중 1,590명으로, 비율로는 18%가 노쇠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노쇠화 비율이 2배 높았고, 미혼이 기혼부부보다 1.8배 그리고 하루 세끼 다 혼밥하는 노인에게서 노쇠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노인 노쇠화 비율 (65세 이상 노쇠 노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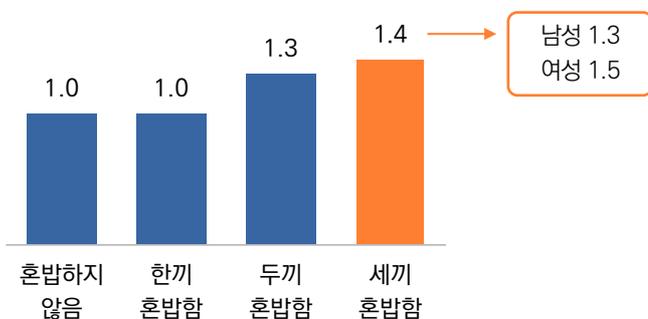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한국 노인의 노쇠와 혼밥 빈도의 관련성 연구,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남진영 교수 연구팀, 2023.11.30 (65세 이상 노인 9,031명 대상, 2014~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활용/분석)

### ◎ 매끼 혼밥하는 노인일수록 신체 노쇠 더 빨라!

- ▶ 그렇다면 노년기의 혼밥은 노쇠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65~74세 노인 기준, 세끼 혼밥한 경우가 세끼 모두 혼밥하지 않는 경우보다 1.4배 더 노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세끼 모두 혼밥하지 않는 경우보다 3끼 혼밥한 경우가 1.3배, 여성은 1.5배 더 노쇠화 비율이 높았다.
- ▶ 노인의 노쇠 위험, 더 나아가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지역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하루 평균 혼밥 빈도별 노인의 노쇠 지표 (65~74세 노인, 비 혼밥자를 기준으로 한 노쇠 배수)



\*자료 출처 :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한국 노인의 노쇠와 혼밥 빈도의 관련성 연구,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남진영 교수 연구팀, 2023.11.30 (65세 이상 노인 9,031명 대상, 2014~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활용/분석)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 \(2023년 하반기\)](#)

한국갤럽\_2024.1.5.

[북한이 핵에 돈 못쓰게... 국민 61% "제재 유지·강화해야" \(외교안보 여론조사\)](#)

중앙일보\_2024.1.4.

[‘정부 견제론’ 우세속 정당 지지도는 초접전... ‘안갯속 판세’](#)

문화일보\_2024.1.2.

[지방의회 55%, 의원 구속돼도 월급 준다...공무원 15% "부패 있다"](#)

조선비즈\_2024.1.4.

◎ 2024 전망

[올해 성장률 2.2% 전망...소비자물가 2.6%](#)

연합인포맥스\_2024.1.4.

[금리 올해는 내려가려나, 살아남으면 봄이 온다](#)

한겨레\_2024.1.5.

◎ 사회 일반

["대선 때보다 '사회갈등 심각' 인식 증가...세대갈등 부상"](#)

연합뉴스\_2024.1.6.

[새해부터 글로벌기업 '15% 최저한세'...출산 주택특공·증여공제](#)

연합뉴스\_2023.12.31.

[정부 부패 개선됐지만...93% "부패 고위공직자 처벌 공정치 않아"](#)

연합뉴스\_2023.12.31.

["출산 주저 이유...첫째 아이는 집값, 둘째·셋째는 사교육비"](#)

중앙일보\_2024.1.4.

["애 낳으면 1000만원"... 충북 파격 승부수 통했다](#)

국민일보\_2024.1.5.

[2023 로또6/45 구매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1.3.

["조의금 10만원 부담돼? 할부도 됩니다"...아무도 몰랐던 '사실'](#)

헤럴드경제\_2024.1.4.

[외국인들 '최애 한식'은 치킨-라면-김치](#)

동아일보\_2024.1.5.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청년 / 청소년

['위기의 청년들'...자살·자해로 응급실 방문 50~70% 급증했다](#)

연합뉴스\_2024.1.3.

[“담배·술 경험 청소년, 마약 손 댈 가능성 높다”](#)

뉴시스\_2024.1.4.

[의대도 양극화...수시 미충원 '최상위권 0명 vs 지방대 24명'](#)

연합뉴스\_2024.1.5.

[20대 여성 6~7명중 1명은 저체중...비만 아닌데도 46% 다이어트](#)

연합뉴스\_2024.1.8.

◎ 경제 / 기업

[135만 경단女 날개펴면 실질 GDP 7% 증가](#)

매일경제\_2024.1.2.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평균 1억5900만원... 투자비 회수는 3.6년](#)

국민일보\_2024.1.5.

[노동자 과로사 60%가 30명 미만 업체서 발생](#)

한겨레\_2024.1.5.

["젊은꼰대가 더 힘들어"...전세계로 퍼진 M과 Z의 충돌](#)

아시아경제\_2024.1.5.

◎ 세계

[유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2.4%로 하향...한국 2.4% 예상](#)

연합뉴스\_2024.1.5.

[미국 '리더십 위기'...국민 지지율 50% 넘는 공직자 1명도 없어](#)

연합뉴스\_2024.1.5.

◎ 건강

[30, 40대 수면 장애...“10년 후 인지장애 부를 위험 크다”](#)

조선일보\_2024.1.4.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하니 응급실 찾는 아이 61% 늘었다](#)

조선일보\_2024.1.2.

◎ 기독교 / 종교

[“학령인구 감소 예방하려면 학생별 맞춤 교육 이뤄져야 해”](#)

더미션(국민일보)\_2024.1.4.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넷째부터 1000만원 지급... 출산장려금 2배 올린다](#)

[더미션\(국민일보\)\\_2024.1.5.](#)

◎ 기획기사 : 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1>, (서울신문)

[위탁부모 절반 이상, “위탁아동 또 돌볼 의향 있다”](#) \_2023.12.31.

[3756명, 사회가 품어야 할 아이들... ‘가정형 보호’가 절실하다](#) \_2023.12.31.

[“얼마 받고 키우냐” “무슨 덕 보자고 남의 애를” 가시가 박혀도...](#) \_2023.12.31.

[핏줄은 아니지만 우리도 가족입니다](#) \_2023.12.31.

[“얼마 받길래 키우는거냐”...위탁부모 두 번 올리는 사회적 편견](#) \_2024.1.3.

[양육지원금으론 턱없이 모자란 학원비·식비... ‘불쌍한 아이’ 시선도 부담](#) \_2024.1.3.

[위탁부모 헌신에만 기댄 채... 양육예산 지원엔 인색한 정부·지자체](#) \_2024.1.3.

[10명 중 1명만 친부모 품으로... ‘원가정 양육’ 지원해 줄 제도가 없다](#) \_2024.1.3.

[보호자 아닌 동거인...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짚어진 ‘제도 밖 위탁부모’](#) \_2024.1.3.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학교,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 후원 기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연신환기(주),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백산 (가나다 순)

##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신규 후원 |

대신교회(담임목사 김요한), 동춘교회(담임목사 윤석호), 해전교회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한미경

###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교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 |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 구입 안내 |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을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신학교 교수, 언론인, 현직 대형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 기독교 문화 전문가, 조사 통계 전문가 등 한국교회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로 TFT를 구성, 기획하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조사와 집필을 주관하여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서적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